2강 도시와 자본주의

2. 도시와 자본주의

2.1 도시를 사유한 사람들

◇ 1920년대의 김기림과 이상은 당시 도시화되는 경성을 지켜보며 최초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다.

◇ 서양에는 발터 벤야민과 시인 보들레르가 있다.

→ 보들레르는 도시를 '악의 꽃'이라 칭했다.

3. 모더니즘과 자본주의

3.1 백화점

◇ 20년대 당시의 미쓰보시(미스코시) 백화점은 동아(동화) 백화점으로 그리고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 사람들은 새로운 제품을 보기 위해 백화점으로 간다.

◇ 백화점을 욕망의 집어등이라고 하기도 한다.

3.2 모더니즘

◇ 모더니즘(Modernism)에서 모던은 새로움을 뜻한다.

→ 자본주의는 늘 새로움을 추구한다. 자본주의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한다.

→ 즉, 부단히 새로움을 추구하는 모더니즘은 자본주의와 관련이 있다.

◇ 대도시에 사는 개인들에게 전형적인 심리적 기반은 신경과민인데, 이는 외적·내적 자극들이 급속도로 그리고 끊임없이 바뀌는 데서 기인한다. (…) 여기서 특히 대도시의 정신적 삶이 어떻게 해서 기분이나 정서적 관계에 더 의존하는 소도시적 삶에 비해 지적 성격을 띠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소도시의 정서적 관계들이 정신의 더 무의식적인 층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꾸준하고 지속적인 습관들을 통해서 가장 잘 발전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우리의 오성은 우리 정신에서도 투명한 층, 즉 가장 상층에 자리 잡고 있다. 오성은 우리의 내적 힘들 중에서 적응력이 가장 뛰어나다. 오성은 대립적으로 변화하는 인상들에 적응하는 데에 어떤 충격도, 내적 동요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특수한 생활조건과 관련된 조건의 산물인 이 미적 성향은 동일한 조건의 산물인 모든 사람들을 함께 묶어주는 반면 그 밖의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시켜준다. 그리고 핵심적인 측면에서 구분시켜 준다. 왜냐하면 취향taste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모든 것, 즉 인간과 사물 그리고 인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분하며, 다른 사람들에 의해 구분된다. 『구별짓기(La Distinction)』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4. 화폐의 절대성

4.1 화폐의 신

◇ 우리는 자본주의에 적응되어 있다. 10만원과 물건 사이에 무엇 하나를 고르라면 우린 주저하지 않고 화폐를 고른다. 하지만 자본주의에 적응되어 있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던 물건을 고른다.

◇ 노동자는 자신이 얻은 화폐로 백화점에 들르는 순간 소비자로 바뀐다.

◇ 화폐는 종교다.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 사물은 대체될 수 있는 객관적 기능의 영역 안에서 사물들은 교환 불가능하지만, 이런 명시적 의미denotation의 영역 밖에서 어떤 사물은 다소 무제약적인 방식으로 대체가능하게 된다. 이런 암시적 의미connotation의 영역 안에서는 사물은 기호라는 가치를 띄게 된다. 따라서 세탁기는 도구로서 쓰여지는serve 것과 함께 행복, 위세 등의 요소로서의 역할도 한다play. 바로 이 후자의 영역이 소비의 영역이다. 여기에서는 다른 모든 종류의 사물들이 '의미를 표시하는 요소signifying element'로서의 세탁기를 대신할 수 있다.『소비의 사회』

5. 치유의 과정으로서의 글쓰기

5.1 위대한 문학가

◇ 보들레르와 이상 그리고 나쓰메 소세키는 공통적으로 깊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 그들은 치유의 과정으로 글쓰기를 택했다.

◇ 그들은 피로써 글을 썼고, 우리는 그들의 문학으로 하여금 자신의 상처를 끄집어 낸다.

5.2 『자발적 빈곤』

◇ **『자발적 빈곤』**은 동서양 사상가들의 명언을 집대성 한 것으로서 자발적인 빈곤이야말로 진정 자유로워 질 수 있다는 내용을 역설한다.
→ 이것은 게으름과는 다른 것이다.

◇ 모던의 삶에 몸을 맡긴 이상은 그야말로 자발적 빈곤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다.

6. 도시와 시골

6.1 관계

◇ 시골은 인간적 유대감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데 반해 도시는 비인격적 이해관계를 토대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 하지만 우리 도시인의 내면에도 시골이 있다.
→ 시골은 가족과 같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시골사람들은 이웃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많다. 그들은 간섭이 심하다.

→ 우리의 가족들 역시도 간섭이 심하다. 그들의 간섭이 곧 애정이다.

◇ 우리는 늘 도시라는 연극무대에 선다.

→ 연극에 나가기에 앞서 우리는 가면(화장)을 쓴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